

## 두루미

두루미(학명: *Grus japonensis*)는 일본에서 살며 번식하는 유일한 두루미종입니다. 홋카이도 동부의 두루미는 일 년 내내 이곳에 머물지만, 유라시아 대륙의 두루미는 철새입니다. 두루미는 장수와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지며, 일본 전통 예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티브입니다. 두루미의 정수리 부분에는 붉은 피부가 드러나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림을 그릴 때도 머리 부분에 붉은 모양을 그려 넣습니다.

에도시대(1603~1867 년)에는 두루미를 동일본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포획과 서식 환경 파괴로 인해 점차 두루미의 개체수는 감소되었습니다. 그렇게 20 세기 초까지 일본에 사는 두루미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. 그러나 1924 년 구시로 습원에 서식하던 10 마리 정도의 두루미 무리가 발견되었습니다. 겨울철에 먹이를 주고 보호 계획을 실행하여 두루미의 개체수는 현재 약 1,800 마리까지 증가했습니다. 두루미는 특별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. 이 박물관에서는 계절별 두루미의 생활사에 대해(겨울철의 섬세한 구애춤 등) 전시하고 있습니다.